

ImageTale 앱 기반 반구조화 집단상담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 경험

최 서 윤* · 강 민 선**

< 초 록 >

본 연구는 ImageTale 앱을 활용한 반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ImageTale 앱의 이미지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참여자들이 기록물에 표현한 정서표현 및 심층면접 자료를 내용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이미지를 구성하기 전 정서를 자각하는 활동을 통해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미지 구성 과정에서 정서의 변화를 느끼며 감정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 구성 후 자신의 이미지를 감상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듣는 과정에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경험하였고, 공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이미지 구성에서 나타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ImageTale 앱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상담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을 돕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 단어: ImageTale, 앱 기반 상담, 반구조화 집단상담, 성인 발달장애인, 정서인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살아간다. ‘정서(Emotion)’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 10. 31.)로 ‘감정’(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교신저자, E-mail: choisy@sookmyung.ac.kr).

Dept.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박사수료.

Ph.D. Candidate, Seoul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이나 기분)과는 다소 의미 차이가 있다. 정서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두는 과정과 경험하는 기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감정 단어를 붙이는 정서 명명으로 이루어진다(이서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서를 예민하게 느끼거나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장애도 있고, 반면에 정서에 둔감하여 어려움을 겪는 장애도 있다.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고, 타인의 정서도 이해하지 못하여 감정 공감과 추론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이는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연결되어 사회부적응까지 겪게 된다(김화수, 이지우, 엄윤지, 최선영, 2019).

지적장애인의 타인의 감정 파악 능력의 결핍은 정신연령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지만, 지적 기능이 지체된 정도가 심할수록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지체된다. 정도 및 중등도(moderate) 성인의 경우에도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묘사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문제 행동의 빈도 및 낮은 사회적 기술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은 감정의 원인을 상황에 두고 있으며, 타인의 신념에 근거하여 감정을 예상하는 수행 수준이 매우 낮다(발달장애지원 전문가포럼, 2023. 11. 17.).

‘발달장애’를 정의할 때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비롯하여 통상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한편, 소아·청소년 의학에서는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 지칭한다(서울대학교병원 N의학정보, 2023. 11. 17. 인출). 이처럼 발달장애를 정의하는 의미가 각 학문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 수준에 비해 지체된 발달 수행을 보인다는 것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조향숙, 김민경, 최미영, 정영규, 2021)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약 97,727명 중에서 20~29세 사이의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63.1%에 해당하는 42,96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는 약 61%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여 적절한 수행을 해내며 살아가는 데 제한이 많다. 또한 이들의 정서인식과 표현능력의 미숙함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더해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김유리, 2017; 조향숙 등, 2021). 이러한 상황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부적응을 겪게 되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상담 개입은 중요하다.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적인 특성상 반복 학습과 훈련을 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합한 매체나 상담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스마트모바일 기기가 일상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기기의 휴대성과 접근성으로 인해 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활용 교육 및 학습활동의 요구가 높아져 이와 관련된 앱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에서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모바일 앱 개발(권정민, 박은혜, 임장현, 이영지, 2012),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그램 활용(주란, 이영선, 2021), 사회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앱 기반 스크립트 콘텐츠 개발(정경희, 송병섭, 2022)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상담 분야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와 앱을 활용한 상담매체 도구 개발을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테면, 하태현과 백현기(201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을 자가 치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위 도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스크립트를 따라가면서 새로운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여 긍정적 정서를 자각하고, 자기이해를 돕고, 공감적 소통을 끌어내는 데 효과를 보였다. 또한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한 도구 개발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론의 명확한 치료 방식이 매체에 용이한 적용 가능성 때문이라고 본 이정연 등(2020)은 20·30대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 완화를 위한 ‘챗봇 U-Me’를 개발하였다. 위 도구는 챗봇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을 묻는 과정을 통해 긍정감과 부정감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기 초점적 주의에서 탈피하도록 돕는다. 가족치료 분야에서 개발된 ‘패밀리 스토리’(김진아, 최연실, 2020)는 가족관계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통찰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앱이다. 연세대학교 디지털정신건강연구소(2020)에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의 정서조절 개선을 위해 개발한 앱 ‘하루ASD’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직까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스마트 기기와 앱을 활용한 치료 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정서인식 및 표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발된 앱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에서 ‘하루 ASD’의 개발은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적용된 앱을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인식과 표현을 돕기 위해 가상환경구성치료의 일환으로 구미향(2020. 11.)이 개발한 ImageTale 앱을 활용한 반구조화 집단상담을 제안하고자 한다.

ImageTale 앱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장면을 구성하도록 개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작성하면서 성찰하게 된다. ImageTale(구미향, 2020. 11.)의 첫 번째 버전은 동물을 테마로 하여 장면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후 구미향(2022. 4.)은 기존 앱의 범주와 기능을 보완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상징물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업데이트하였다. ImageTale을 상담매체로 활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정서상태 지각을 촉진하고, 두 번째로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감정표현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구성이 끝난 후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제목을 설정하고, 감상평을 작성하면서 보다 깊은 수준의 정서인식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구미향(2022. 11.)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성찰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ImageTale을 활용한 사례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감정지각의 변화 연구(구미향, 2023), ADHD 아동의 자기감 증진 효과 연구(구미향, 2022. 4.) 등이 있다. 또한 강민선, 구미향과 이정미(2023) 등은 직장 여성의 소진관리 상담 연구에서 ImageTale 앱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참여자들에게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이라는 주제로 이미지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자기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 소진을 이겨낸 성과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ImageTale 앱이 정서인식과 표현을 촉진하는 상담매체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ImageTale 앱을 활용한 반구조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게 되는 경험을 살펴보고, 정서인식의 변화 과정을 정서표현 언어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ImageTale 앱 기반 반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인식의 경험은 어떠한가?
2. ImageTale 앱의 자연배경에 대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인식의 표현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ImageTale 앱 기반 반구조화 집단상담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 경험과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절차에 따라 참여자를 소개받는 형식으로 모집하였고, 집단상담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성인 발달장애인 총 5명의 남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연령대는 30대 1명, 20대 4명이었고,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 3명, 지적장애 2명, 학력사항은 초대졸 2명, 대졸 1명, 고졸 1명, 대학재학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사무보조 1명, 물류보조 1명으로 총 2명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2명은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기능 발달장애인으로 대학생, 혹은 간단한 업무를 하는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장면에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구조화 집단상담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에게 ImageTale 앱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ImageTale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금-현재(here-and-now) 떠오르는 감정이나 신체 감각을 이미지로 구성하고, 이러한 느낌이나 감정을 글로 적고, 언어로 표현해 보는 집단상담의 목표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면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정서표현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였다.

표 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장애유형	학력	업무	행동특성
A	남	30	자폐성장애	초대졸	사무 보조	원활한 상호작용보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식의 소통이 가능함. 자신이 원하는 자극이나 관심사에만 반응하여 주의집중이 어려움. 감정에 대한 질문에는 좋음과 싫음 정도만 표현함.
B	남	26	지적장애	대졸	취업 준비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부자연스럽게 소통을 시작하는 일이 종종있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는 고집스러운 모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타인의 실수를 못 넘기고 지적하여 다른 집단원들이 불편해 함.
C	남	25	자폐성장애	초대졸	취업 준비	딱딱하고 툠 없는 말투의 독특한 억양을 보여 스스로 국어책 읽는 것 같다고 지각. 자신의 관심사만 이야기하거나 질문에만 답을 하고, 다른 집단원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일은 거의 없음. 감정 단어는 많이 알고 있으나 느낌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움.
D	남	25	지적장애	고졸	물류 보조	언어 이해력이 다소 떨어져 설명을 반복해야 해야 경우가 많음. 다른 집단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 감정 또는 사회적 상황 등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은 매우 자신 없어 하고, 참여도가 매우 떨어짐. 감정표현에 있어서는 좋음과 화남의 극단적 표현만 함.
E	남	23	자폐성장애	대학 재학	-	낯선 것에 대한 긴장감을 크게 느껴 새로움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함. 상담자의 질문에 답하기까지 생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자신 없는 질문에는 '생각 안 나요', '모르겠어', '난 원래 몰랐어' 식의 대답으로 급히 마무리 하려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자신의 이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표현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알고 있는 감정 단어의 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감정을 느끼면서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임.

참여자 A는 컴퓨터 사용이나 업무 기능은 우수한 편이지만,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 B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부적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자 C는 원하는 바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나, 대인 갈등 상황에서 자기표현과 정서에 대한 단어 사용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참여자 D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참여자 E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서표현이 제한적이고, 정서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이로써, 참여자들이 ImageTale 앱을 통해 정서인식 경험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각 개인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개인정보와 비밀 보장,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2. 연구도구

1) ImageTale 앱

연구도구는 ImageTale 어플의 개정 버전(구미향, 2022. 11.)을 사용하였다. ImageTale 앱은 Google Play Store와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이다. ImageTale 앱의 기본 화면을 띄우면 <그림 2-1>과 같이 6개의 기본정서가 제시되고, 화남, 슬픔, 우울, 보통, 좋음, 신남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일차 정서를 인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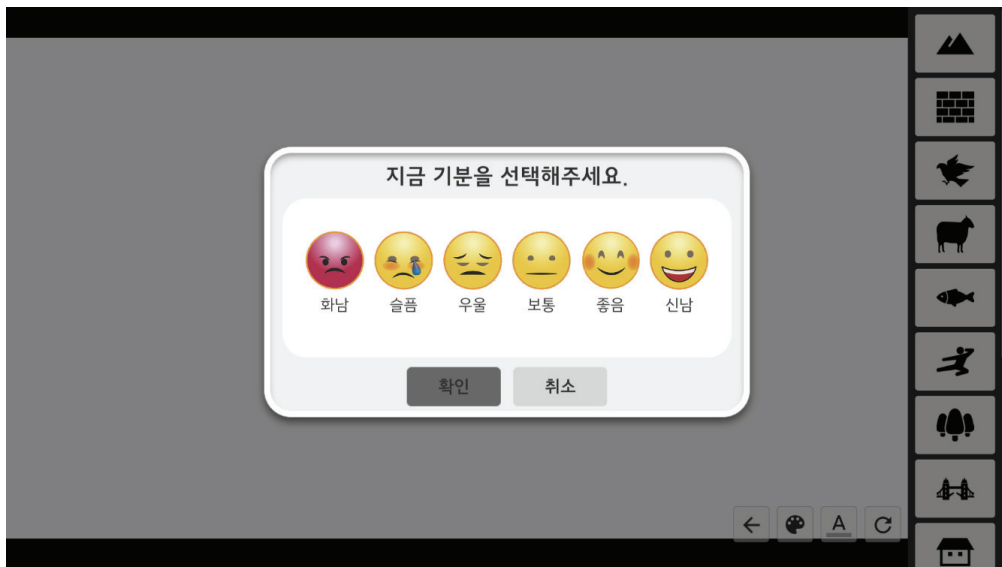


그림 2-1. ImageTale 시작 전 기본정서 선택 화면

다음으로 사용자가 앱 내에 있는 상징물을 살펴보고 선택한 이미지를 클릭하여 화면에 놓으면서 자유롭게 구성한다. 구성할 수 있는 상징물은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11개 범주와 총 2168개가 있으며, 상징물을 클릭하면 확대, 축소, 이동, 상하좌우반전, 순서전환, 색상 변경, 이미지 추가 및 삭제, 글쓰기, 초기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앱 기반의 가상환경 내에서 구성하면서 자발적인 흥미를 유발하며, 자연스럽게 정서인식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지 구성이 끝나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감상의 글쓰기를 하고, 기분 변화를 지각하고 평가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구성이 끝난 이미지는 저장 후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이메일 또는 SNS로 전송할 수 있다.

2) 반구조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을 촉진시키기 위해 반구조화 집단상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교육학박사와 박사 수료생 하였고, 20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으며, 각각 한국상

담심리학회 1급과 2급 자격증을 소지하였다. 연구자 중 1인은 ImageTale을 상담매체로 활용한 사례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반구조화 집단상담 주제와 내용은 다음의 <표 2-2>와 같으며, 1회기~5회기는 연구들이 주제를 제시하였고, 이후 6회기~10회기는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주제를 제안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높였다.

반구조화 집단상담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1회기~5회기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느껴지는 감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여 떠오른 이미지로 구성하도록 격려했다. 예를 들어, “자, 지금부터 내가 가장 편안한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화면에 놓아보세요. 마음 가는 대로, 놓고 싶은 대로, 손 가는 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해 보세요. 놓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놓아도 됩니다. 어떤 이미지이든 마음에 들 때까지 해 보아도 됩니다.” 식으로 참여자들이 상담자의 안내에 따라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각자의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 다 함께 감상하도록 하였다. “화면 속 이미지를 미술 작품을 바라보듯 감상해 봅시다. 작품을 바라보듯이 보다가 어떤 느낌이 나에게 느껴지는지를 집중해 봅시다. 자신의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며 천천히 나와 다른 참여자들이 구성한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의 발달 수준으로 인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문제 풀이가 아니니, 여러분 각자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격려를 반복하였다. 이때, 말하지 않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을 때의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 집단에서 나의 감정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또는 감정을 느끼고 알아차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눠주어도 좋습니다.”

표 2-2. ImageTale 앱 기반 반구조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제

회기	주제	내용
1회기	편안한 장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장소를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2회기	가족	내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3회기	오늘 기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떠오른 느낌이나 감정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4회기	새해 첫날	새해 첫날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5회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6회기	밤	밤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7회기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8회기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9회기	나의 기분	나의 기분에 대해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10회기	나의 미래	나의 미래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표현하기

3. 연구절차

2022년 12월 4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사전면담을 포함해서 총 10회기의 반구조화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기록, 자료의 활용 및 보관, 비밀보장의 원칙, ImageTale 앱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나누기로 시작하여 주제 제시, ImageTale 구성 후 연구자 개인 메시지로 전송하기, 컴퓨터 화면에 참여자들의 이미지를 띄워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 가지기, 자신의 이미지를 다른 참여자들에게 설명하기, 연구자가 정서 촉진을 위한 심층 질문하기,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감상한 피드백 나누기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연구자가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집단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수퍼비전 및 리더를 하였고, 상담심리학 박사를 수료하고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연구자가 집단상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 미팅을 통해서 집단상담 목표, 도구의 사용 설명과 면담을 하고, 1회기에서 5회기까지 주제가 정해진 회기를 진행하였다.

상담 종결 1주일 뒤에 추후 모임을 갖고 그룹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룹면접은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의 형태로 연구자가 질문하고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질문 내용은 'ImageTale을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 'ImageTale을 구성하는 동안 느껴진 나의 감정', 'ImageTale을 구성하고 난 후 감정의 변화', 'ImageTale을 하면서 도움받은 점과 아쉬운 점' 등이었다. 연구자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ImageTale을 구성하는 동안 느꼈던 정서를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정서 변화가 구체적으로 느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회고적 질문을 반복하였다.

4. 자료분석

참여자들이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한 후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담 과정을 녹음한 자료와 10개의 기록지, 그룹면접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룹면접이 끝난 후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였고,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전사된 자료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코드를 생성하였고, 구축된 각 코드를 비교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자들 간에 내용을 해석할 때 중요한 주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며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ImageTale을 개발하고, 사례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ImageTale 앱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인식의 표현과 감정 단어 등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ImageTale 앱 기반 반구조화 집단상담에서의 정서인식 경험

상담 회기와 심층 면접에서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을 하였고, 자신이 인식하고 경험한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이하 T) 감정반영과 공감의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고,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ImageTale에 대한 첫 느낌

참여자들에게 ImageTale 앱을 소개하자 관심을 갖고 다운로드 받았고 연구자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여 SNS, 영상보기와 올리기, 메일 전송 등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어플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손으로 조작하며 이미지를 구성한다는 말에서 “잘 못하면 어떻하나요?”의 질문을 하며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연구자들은 정서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감정반영과 공감의 상담기법(예: “내가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드시는구나”) 등으로 마음을 알아주었다.

(1)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참여자들은 ImageTale 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였다. 실시 과정을 보여 주자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자발적인 동기가 형성되었고,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새로움에 대한 관심의 정서를 감정 단어로 표현해 보도록 촉진하였다. 또한 연구자 설명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과 SNS를 설명하면서, ImageTale도 게임이나 체험 중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하였다. 연구자들은 흰 화면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배경을 선택하고, 그 안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상징물을 놓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표 3-1. ImageTale 반구조화 집단상담 경험

영역	범주	내용
ImageTale에 대한 첫 느낌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	흥미로움, 신박함
		이미지 단어에서 3d 체험이 떠오름
	새로움에 대한 염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까봐 오래 생각하게 됨
ImageTale 구성 중 느낀 감정	판타지가 떠오름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인 느낌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감정을 느끼는 나를 자각함	현재 나는 너무 행복함
		슬픈 마음도 나의 감정
ImageTale 구성 후	과거의 내가 생각남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오름

영역	범주	내용
감상 중 느낌	현재의 나란 사람	지금과는 다른 내 모습이 있었음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됨
		이런 모습이 나왔구나 깨달음
		무기력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음
	미래의 내 삶을 고민하게 됨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됨
ImageTale 피드백을 통해 느낀 감정	나를 표현하게 됨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됨
		여러 가지 감정을 알게 되었음
	이해받는 경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움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편안해짐
	타인을 더 잘 알게 됨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함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됨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됨

E : 아, 이걸 정말 신박하다. 저는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어플인지도 엄청 궁금해서 빨리 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걸 호기심이라고 하죠.

T : 네. 신박한 느낌이 들었군요. 또 다른 감정 단어로 표현할 수 있나요?

E : 네. 새롭다. 기대.

(참여자 E, 추후면담, 2023. 2. 19.)

B : 신기했어요. 흥미롭군요.

T : 신기한 느낌이었네요. 흥미롭기까지 하고요.

B : 흥미롭다는 것은 좋은 느낌입니다.

(참여자 B, 사전면담, 2022. 12. 4.)

C : 저는 이미지테일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딱 이거 3d 체험인가 생각했어요.

T : 3d 체험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어땠나요?

C : 무슨 가상현실 체험인가 해서 정말 빨리 해 보고 싶다. 체험을 하면 얼마나 신이 날까?

T : 신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아 기대되는 마음이었네요.

(참여자 C, 사전면담, 2022. 12. 4.)

(2) 새로움에 대한 염려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룬다고 하며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잘하고 못하고 평가 기준은 없으며, 오늘의 주제를 듣고 자신이 구성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상징물을 클릭해서 놓으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이미지를 비교하며 잘 못하는 모습에 위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를 인식하게 하고 감정단어로 표현하도록 촉진하였고, 새로운 긍정감정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A :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카톡도 이모티콘은 못해요. 근데 이미지테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T :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미지테일이 처음이니까요.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네요.

A : 네 맞아요. 걱정이예요 걱정.

(참여자 A, 1회기, 2022. 12. 11.)

D :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T :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떤가요?

D : 그냥 기분은 안 좋아요. 실망이다?

T : 기분이 안 좋고. 또... 실망은 어떤 것에 대한 실망인가요?

D : 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못하니까.

T :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D : 오래 생각하면서 잘하고 싶다.

(참여자 D, 1회기, 2022. 12. 11.)

2) ImageTale 구성 중 느낀 감정

참여자들은 ImageTale 앱을 통해 이미지 구성 전과 구성 후 정서자각을 위한 기본정서 6가지(화남, 슬픔, 우울, 보통, 좋음, 신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정서를 선택하고 난 후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과 감상평을 작성하고 나서 다시 감정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내 감정이 다르게 변화되어 있음을 자각하도록 촉진하였다.

(1) 판타지가 떠오름

참여자들 중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에 기분이 달라지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작성 후 자신의 이미지를 보면서 평소 내가 해내지 못하는 작품 구성에 대해 감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제에서 참여자들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나의 욕구와 나의 기대감에 대한 표현을 더 많이 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 체험이 참여자들에게는 희망을 갖고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B : 이거 이렇게 표현하다니! 무슨 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은데. 하하. 그럼같네요.

T : 내 작품이 마음에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B : 네. 엄청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내 실력이 아닌 것 같은 것은 확실합니다. 뭐랄까 판타지 영화같다고나 할까요.

(참여자 B, 1회기, 2022. 12. 11.)

C : 그런거 있잖아요. 몽환적이랄까.

T : 몽환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인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C : 네. 몽환적이라는거죠. 음... 꿈 속같은. 현실이 아닌. 꿈 속에 있는 것 같은.

T : 그건 굉장히 신비로운 것인데.

C : 네 맞아요. 그거요. 신비롭다. 보세요 제 작품 신비롭지 않나요?

(참여자 C, 4회기, 2023. 1. 1.)

D : 나도 컴퓨터 자격증 따고 싶어요.

T : 아, 뭔가를 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군요. 나의 모습에 대해 느껴지는 것이 있나요?

D : 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도 하고, 자격증도 따서 잘 하고 싶다. 그럴 수 있겠지요? 여기 보세요. 컴퓨터 하고 있는 저를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참여자 D, 5회기, 2023. 1. 8.)

(2) 감정을 느끼는 나를 자각함

정서인식 명확성은 정서표현을 더욱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신체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참여자들도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에 자신의 정서를 보다 깊이 체험하면서 신체 변화를 자각하고 있었다.

E : 이미지를 보니까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T : 가슴이 떨린다는 표현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어떤 감정인가요?

E : 행복한 느낌.

T : 행복한 느낌 때문에 내 가슴은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표현해 볼 수 있나요?

E : 어... 심장이 쿵쿵쿵거리는 것인가요?

T : 행복한 감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에요.

E : 네 그거예요. 그런 표현.

(참여자 E, 추후면담, 2023. 2. 19.)

3) ImageTale 구성 후 감상 중 느낌

이미지 구성이 끝나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글로 작성하게 된다.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쓰는 시간이 자기성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느껴지는 감상평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내면을 탐색하도록 촉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긴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단순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내가 구성한 이미지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어떠한가요?'라는 연구자들의 촉진 질문에 의해 참여자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하였다.

(1) 과거의 내가 생각남

자신이 구성한 이미지를 함께 감상하면서 어린 시절의 나,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오르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로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고, 잊고 싶은 과거로 표현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과거의 경험도 내가 주체가 되었음을 자각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D : 어렸을 때 이 자전거 타고 놀았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T : 어린 시절이 떠올랐네요. 어떤 마음인지 감정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나요?

D : 추억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

T :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나에게 떠오른 어린 시절의 추억이...

D : 다시 돌아가고 싶다. 보고 싶다.

T :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때요?

D : 네 그렇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다.

(참여자 D, 2회기, 2022. 12. 18.)

C : 그거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자연환경을 좋아했다는 것ियो. 여기 제가 좋아하는 자연풍경이 다 들어 있네요.

T :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C : 네. 아주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랄까.

(참여자 C, 1회기, 2022. 12. 11.)

(2) 현재의 나란 사람

‘기분’에 대한 주제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주제는 참여자들이 특히 좋아하였고 집중도가 높았다. 현재 나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뿌듯한 감정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기이해를 하게 되고 수용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이 되었다.

A : 저예요. 이거요. 컴퓨터 자격증 공부하면서요. 지금은 사무보조지만 나중에 정규직 될 수 있어요.

T : 그럼요. 나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그래서 어떤 감정인가요?

A : 뿌듯해요. 정규직 되면 돈도 더 많이 벌고 뿌듯하죠 당연히.

(참여자 A, 5회기, 2023. 1. 18.)

E : 저는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가 많아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T : 그런 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E : 마음에 들진 않죠. 이런 내가 별로다.

T :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E : 변하고 싶다.

(참여자 E, 3회기, 2022. 12. 25.)

B : 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감정이기도 하네요.

T : 내가 표현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표현이 되었군요. 그래서 어떤가요?

B : 아 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진 기분이랄까. 썩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네요.

T : 네. 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도 나 잦아요.

B : 내 모습을 인정해야겠지요.

(참여자 B, 3회기, 2022. 12. 25.)

(3) 미래의 내 삶을 고민하게 됨

참여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경험도 하였다.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

과 걱정, 염려의 정서도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수용하였다.

C :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T :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나요?

C : 나의 미래를 생각하다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격증이 있긴한데 어디 취업도 못하고,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T : 내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네요.

C : 네. 동기형성이라고 하죠.

(참여자 C, 추후면담. 2023. 2. 19.)

B : 이걸 정말 끔찍한 생각이지만 표현했어요.

T : 끔찍하다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느낌일까요?

B : 그냥요 다요. 제 미래가 이렇게 끔찍할 수도 있겠다. 물론 취업이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은 어려워요.

T : 많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네요.

(참여자 B, 5회기. 2023. 1. 8.)

4) ImageTale 피드백을 통해 느낀 감정

이미지 감상이 끝나고 나면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작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하도록 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주의력이 짧고, 타인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는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주의깊게 듣도록 하였고, 감상평을 해 준 참여자에게 언어적 반응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였다.

(1) 나를 표현하게 됨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은 나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표현되고 투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개방하게 되고,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오픈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면서 감정단어를 표현해 보는 연습도 할 수 있었다.

D : 이런 모습이 나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T : 나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느낌이 어떤가요?

D : 그냥 편하다. 말 많이 안해도 이미지로 나를 알려주니까.

(참여자 D, 추후면담. 2023. 2. 19.)

E : 저는 감정을 말 할 줄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T : 이런 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E : 뿌듯해요.

(참여자 E, 추후면담. 2023. 2. 19.)

(2) 이해받는 경험

참여자들 간의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은 서로가 이해를 주고받으며 위로가 되어 주는 시간이 되었다. 사회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감상평을 들으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으로 위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C : 이거 웬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데요.

T :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인가요?

C : 고마운 느낌이죠.

(참여자 C, 추후면담, 2023. 2. 19.)

B :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T :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

B : 감동입니다.

(참여자 B, 추후면담, 2023. 2. 19.)

(3) 타인을 더 잘 알게 됨

나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정서도 인식하면서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에서 타인을 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고, 반면에 나와 달라서 통하지 않는 면도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연구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관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경험이 되었다.

D :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격도 있고, 그래서 나랑 다르다.

T : 나랑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의 감정은 어떤가요?

D : 답답할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다.

T :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들리네요.

D : 인정할 수 밖에 없죠. 나와 다르니까. 다르다고 화낼 수는 없으니까.

(참여자 D, 추후면담, 2023. 2. 19.)

A :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야 되요.

T :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미지에 대해 얘기해 줄 때 잘 듣고 있었네요.

A : 네. 좋은 얘기 해주니까요. 안 좋은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잘 들었어요. 그러면 더 잘 지내게 되요. 회사에서도요.

(참여자 A, 추후면담, 2023. 2. 19.)

2. ImageTale의 자연배경에 대한 정서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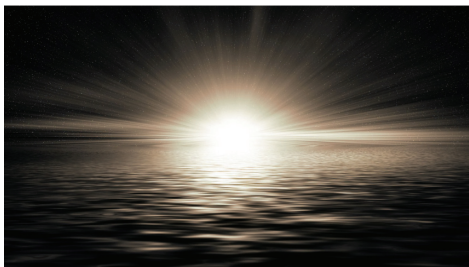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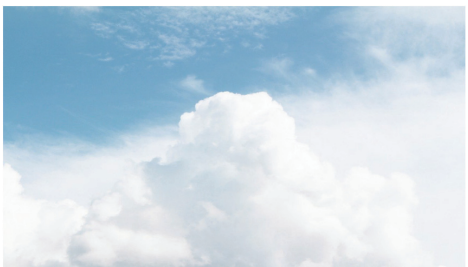


ImageTale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첫 배경은 자연환경이다. 참여자들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배경을 선호하였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서를 알아채고 인식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자연물이 인간에게 주는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 대한 느낌은 꾸밈없이 표현하는 솔직함이다(유수연, 2018).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주제를 제시하는 시작 회기인 6회기와 종결 후 심층 면접 시작 시 마음에 와닿은 자연배경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배경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자신만의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여 정서인식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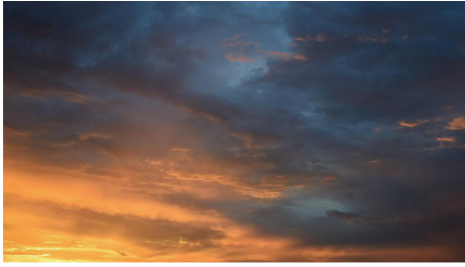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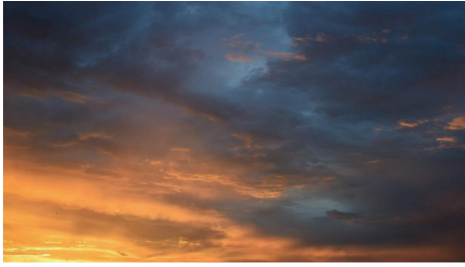


참여자들이 자연배경을 통해 느낀 정서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참여자 A는 자폐성장애의 특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상황과 무관한 맥락의 정서가 자주 드러났고, 부적절한 표현도 나타났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 A는 상황에 근거한 정서인식의 표현이 증가하였고, 부정정서에서도 ‘불쾌감’이라는 단편적인 표현에서 ‘어름철 장마에 대한 지루함’과 ‘태풍 때문에 걱정됨’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황과 맥락이 일치되는 정서인식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 B의 경우 지적장애 정도 수준으로 언어이해와 표현, 사회정서 발달 등에 있어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 사회통합이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대인관계 축소와 취업을 못하여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었다. 집단상담을 통해 정서인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던 것에서 자신의 감정이 신체적으로 자각되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변화를 보였다. 긍정정서 표현도 ‘벅차다’, ‘희망차다’ 등의 단순한 단어에서 ‘폭신한 느낌’, ‘구름 위에 앉고 싶은 느낌’ 등으로 복합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었다. 부정정서에서도 ‘슬픔’이라는 일차 감정에서 확장하여 ‘빼쩍 마른 사람 같아 안쓰럽다’의 표현 등 깊은 수준의 정서로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자 C도 자폐성장애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타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다. 그럼에도 단순하고 보편적인 감정 단어만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어 정서인식을 확장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회기를 진행하면서 한 두 단어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6회기의 긍정정서 표현은 ‘타트임’ 하나의 단어로만 표현하였으나, 종결 후 ‘시원해 보임’, ‘탁 트였음’, ‘평온함’ 등으로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게 되었다. 부정정서 인식도 ‘어둡고 답답함’, ‘꽉막함’ 등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느낌의 표현에서 ‘불안함’, ‘무서움’ 등 정서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다.

표 3-2. ImageTale 자연배경에 대한 정서인식 변화 경험

구분	6회기	종결 후
참여자 A	<p>긍정 정서</p> <p>동남아 여행의 기분, 쾌적함</p> 	<p>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p> 
	<p>부정 정서</p> <p>비오는 날 덥고 습함, 불쾌감, 여름이 싫어</p> 	<p>지루함. 태풍이 언제 끝날까. 태풍 때문에 걱정됨</p> 
	<p>긍정 정서</p> <p>밝다, 희망차다, 벅차다</p> 	<p>푸르다, 폭신한 느낌이 든다, 구름 위에 앉고 싶다</p> 
	<p>부정 정서</p> <p>울 것 같아, 슬픔</p> 	<p>굵은 사람, 배고픔, 뼈쩍 마르고 안쓰럽다</p> 

구분	6회기	종결 후
참여자 C	<p>긍정 정서</p> <p>탁 트임</p>	<p>종결 후</p> <p>시원해 보임, 탁 트였음, 평온함</p>
		
참여자 D	<p>부정 정서</p> <p>어둡고 답답함. 꼭 막힘.</p>	<p>불안함, 무서움</p>
		
참여자 A	<p>긍정 정서</p> <p>일이 끝난 저녁.</p>	<p>붉은색이 예뻐, 노을이 좋음, 희망</p>
		
참여자 B	<p>부정 정서</p> <p>깜깜해. 달도 있었으면.</p>	<p>충격받는 느낌, 불안함, 걱정됨</p>
		

구분	6회기	종결 후
참여자 E	맑고 청량함, 행복 	청량함, 푸르름, 자유로움 
	허전함 	폭풍이 올 것 같음. 조마조마함. 충동성. 화 

참여자 D는 지적장애로 현재 물류센터 보조로 일하면서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인식 수준이 낮고, 정서조절이 어려워 화가 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집단상담에서도 표현이 많지 않고 단답형 또는 짧은 문장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6회기에서 선택한 자연 배경에서 느낀 긍정정서로 ‘일이 끝난 저녁’이라는 말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였다. 종결 후 ‘밝은 색이 예쁨’, ‘노을이 좋음’, ‘희망’ 등의 감정단어를 활용하여 정서를 인식하는 변화를 보였다. 부정정서에서도 ‘깜깜해’의 단순한 표현에서, ‘충격받는 느낌’, ‘불안함’, ‘걱정됨’ 등의 깊은 정서를 표현하게 되었다.

참여자 E는 자폐성장에 진단을 받았으나 인지적 수준은 평균 수준으로,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사회적 능력 발휘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집단상담의 경험이 새로움과 염려로 다가올 만큼 성인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경험한 상담관계 체험이었다. 참여자 E는 정서인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긍정정서 표현을 보면 ‘맑고, 청량함’, ‘행복’의 감정에서 ‘청량함’, ‘푸르름’, ‘자유로움’ 등 내면의 욕구를 표현하는 변화를 보였다. 부정정서 표현에서는 ‘허전함’이라는 단어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상담 종결 후의 표현을 보면 ‘폭풍이 올 것 같음’, ‘조마조마 함’, ‘충동성’, ‘화’ 등 자신의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상황과 맥락에 따른 감정으로 전달되는 신체적 자각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ImageTale 앱을 활용하여 반구조화 집단상담에 참여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인식 경험과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집단상담의 참여자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등 성인 발달장애인 5명이었고, 총 10회기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제한된 발달 수준으로 인하여 인지, 사회, 정서, 학습, 대인관계 등 일반 성인과 달리 역량 수행이 매우 부족하다. 여러 발달 중에서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정서는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인지적 수준에 따라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하기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회사에 취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서인식의 제한과 어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어 지속적인 사회통합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교육 및 상담의 연계는 중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사회에 통합되어 있기도 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고기능의 발달수준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정서인식과 표현의 어려움으로 의미 있는 대인관계 시작과 유지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ImageTale 앱을 기반으로 한 반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과 구성 후 감상하며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상담 절차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인식 경험을 보고 하였다. 예를 들면, 회기가 지남에 따라 참여자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감정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었고, 정서를 느끼는 순간의 경험을 표현하는 변화도 보였다. 이는 이미지가 일으키는 정서자각과 인식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게 하는 메카니즘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결과이다(이영규, 김현석, 2023; Given & Wilson, 2022).

둘째, ImageTale 앱의 시각적 이미지 효과는 선택적 주의를 집중시켜 발달장애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흥미로운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각적 표현이 자폐성장애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영규, 김현석, 2023). 또한 참여자들이 자연배경을 통해 느낀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변화 과정은 주목하여 볼 만한 결과이다. 자연배경이 주는 심미감은 인간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며, 이를 감정 형용사로 표현하여 호감 구조를 살펴본 연구(유수연, 2018; 이주환, 조택연, 2018)에서와 같은 맥락이다. 연구 참여자들도 자연배경에서 자신들이 더 호감을 느끼는 장면을 선택하여 정서인식을 폭 넓히는 경험을 통해 표현을 하면서 정서인식에 대한 자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일반 성인에 비해 낮은 발달수준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서가 자기 주체적임을 인식하게 된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체가 ‘자기(self)’라는 점에서 정서인식이 단순히 의식적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무의식적 수준에서 경험되는 심층심리학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구미향(2023)의 제안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절차와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일차정서 및 복합정서의 발달을 촉

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인식 과정은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발달장애인 수준이 각기 달라 개인차가 크고, 성격적 특성과 장애유형에 따라 정서인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도 차이를 보인다(김화수 등, 2019). 최근 들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 드러나면서 발달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강성리, 윤주연, 2022). 이러한 문제 행동의 기저에는 낮은 발달수준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조절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아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인식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치료교육 및 상담의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ImageTale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정서인식이 이루어지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참여자의 보고로 보아, 정서인식이 정서표현뿐만 아니라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에스터, 최소영, 2023).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ImageTale 앱(구미향, 2020. 11.)은 본래 아동상담용 도구로 개발된 매체이다. 모래상자치료를 가상현실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되었으며, 개인의 감정은 환경적 맥락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는 감정구성이론(Barrett, 2017)을 근거로 이미지를 창출하는 주체인 ‘자기(self)’, 즉 ‘나’의 작품이 곧 나의 감정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본 바와 같이 아동 이외에도 성인의 감정인식과 자각에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고(강민선 등, 2023; 구미향, 2022. 4, 2022. 11, 2023),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정서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자가 상담관계 형성과 내담자의 자기인식 및 개방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매체를 활용한다고 밝힌 이윤주(2022)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연구참여자들의 정서인식 변화는 이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ImageTale 앱을 상담 도구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앱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일반 성인들과는 다른 낮은 이해 수준에 있어 개별화 교수에 따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보다 효과적으로 흥미와 동기를 높여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앱들은 주로 지식 활용 접근과 사회적 기술 향상, 읽기와 생활 습관, 자기 관리 등 인지 발달과 긍정적 행동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권정민 등, 2012; 정경희, 송병섭, 2022; 채수정, 2021), 정서인식 및 표현 촉진을 목적으로 한 앱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인간의 발달은 인지, 정서, 행동 등이 통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를 맺으며 성공적인 사회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에 개발된 ASD 앱(연세대학교 디지털정신건강연구소, 2020)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급과 활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ImageTale 앱은 모바일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나 어린 연령이나 발달장애인 등 조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에게는 그 활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 현장의 보급을 위해서는 P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고기능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이 발달장애인이라고는 하지만 사회에 통합되어 있거나 고등 교육을 받은 자들로서, 의사소통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않는다 하더라도 앱을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럼에도 상담자들이 이들의 수준에 맞게 어휘 수준을 쉽게 표현하면서 이해시키고, 지시 사항을 반복하면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추후 기능이 낮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쉬운 언어표현과 앱 활용의 절차와 방식으로 변용하여 단순한 일차 정서부터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성과를 이어 후속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통합과 적응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회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서인식 발달을 살펴보면 청소년기까지는 친구를 잘 사귀고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면, 성인기에는 보다 깊은 수준의 타인 이해와 배려,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여,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매너와 태도 등으로 연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서인식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정서인식, 표현 및 조절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앱 개발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가 발달장애를 발견하는 시기는 영유아기 또는 학령기에 들어설 때이며, 이 시기부터 부모들은 치료교육 및 상담을 받으며 있는 힘을 다한다. 그러나 성인기에 들어서면 이전까지 받았던 치료교육 및 상담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김유리, 2017).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개인적 욕구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힘들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이 더 이상은 치료교육 및 상담에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부모의 체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가족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는 치료교육 및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이수정, 허준, 2017). 현재 메타버스, 챗 GPT등이 활발하게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들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배우고 습득하고 활용할 권리가 있다(권정민, 이영선, 2023). 이를 위해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수준에 적합한 앱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하여, 이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매체 활용 등에 대한 상담자들의 고민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주류화(mainstreaming) 안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반 성인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일궈낸 스마트 기반을 활용하며 당당하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Imagetale 앱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연구로 참여자들의 정서인식을 촉진하는 도구로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mageTale이 상담도구로 개발되어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임상사례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매체로 입지를 굳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분 석 문 헌

- 강민선, 구미향, 이정미 (2023). 앱 기반 비대면 상담을 통한 직장여성의 심리적 소진 경험 탐색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23-46.
- 강성리, 윤주연 (2022).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지원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컨설팅 경험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8(1), 45-77.
- 권정민, 박은혜, 임장현, 이영지 (2012).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모바일 앱 및 게임 제안서.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5(1), 31-42.
- 권정민, 이영선 (2023). 메타버스와 자폐성장애: 기회와 고려점.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23(1), 35-46.
- 구미향 (2020. 11.). 가상현실 환경구성을 위한 앱 개발.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04. 온라인 학술대회.
- 구미향 (2022. 4.). ImageTale 앱을 활용한 ADHD아동의 자기감 증진 효과 연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17. 온라인 학술대회.
- 구미향 (2022. 11.). 아동상담을 위한 ImageTale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활용방안.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53-154.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 구미향 (2023).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자기감정 변화과정 사례연구. *Crisisonomy*, 18(10), 159-17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3. 10. 31). 정서.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3. 10. 31 인출
- 김에스터, 최소영 (2023). 정서차원과 맥락유형에 따른 경도지적장애 아동의 정서 어휘 이해. *특수교육논총*, 39(2), 1-18.
- 김유리 (2017). 발달장애 성인과 부모를 위한 미래계획 프로그램 연구동향 및 프로그램 특성 고찰. *지적장애연구*, 19(2), 51-76.
- 김진아, 최연실 (2020). 가족치료를 위한 CBFT 기반의 디지털 치료도구로서의 모바일 앱 개발: 탐색적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8(4), 471-501.
- 김화수, 이지우, 엄윤지, 최선영 (2019). 지적장애 성인의 상황에 따른 감정 표현 어휘다양도와 공감능력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21(3), 75-102.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1. 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01&lsiSeq=232645#0000>에서 2023. 10. 25 인출
- 발달장애지원 전문가포럼 (2023. 11. 17). 발달장애아의 감정 인식 능력의 발달과 차이에 대하여. <http://www.thespecial.kr/?r=special&c=interaction/behavior&p=5&uid=8862>에서 2023. 11. 17 인출
- 서울대학교병원 N 의학정보 (2023. 11. 17). 발달장애.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에서 2023. 11. 17 인출
- 연세대학교 디지털정신건강연구소 (2020). 하루ASD 앱 소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sO3u9ITaks>에서 2023. 11. 17 인출

- 유수연 (2018). 자연 요소를 활용한 감정의 시각적 표현 기법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6), 87-99.
- 이윤주 (2022). 상담자의 매체 활용 상담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인문사회 21, 13(6).
- 이서정, 현명호 (2008).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887-905.
- 이수정, 허준 (2017). 장애 성인 대상 교육적 중재 연구의 국내 동향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1(4), 61-90
- 이영규, 김현석 (2023). 이모티콘의 표현 유형과 시각적 표현 방식이 자폐스펙트럼 장애 (ASD) 아동·청소년의 정서와 행동 변화 유도에 미치는 영향.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6(3), 149-165.
- 이정연, 박찬미, 문성운, 이한솔, 이수진, 김진우 (2020). 2030대 젊은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 완화를 위한 챗봇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 U-Me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 pp. 960-965. 강원: 소노벨 비발디파크.
- 이주환, 조택연 (2018). 감정형용사를 통한 자연풍경의 표상적 호감구조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3), 273-286.
- 정경희, 송병섭 (2022). 사회적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앱 기반 스크립트 콘텐츠 개발. 재활복지공학학회논문지, 16(3), 152-162.
- 조향숙, 김민경, 최미영, 정영규 (2021). 팬데믹 시대(Covid-19)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 연구. 울산: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란, 이영선 (2021).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고용환경 중심의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7(4), 1-25.
- 채수정 (2021).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상황이야기 AAC앱 개발: 지역사회 이용기술 중심으로. AAC Research & Practice, 9(2), 55-89.
- 하태현, 백현기 (2015) 이야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마음상처 치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6(2), 207-218.
- Barrett L. F. (2017). The theory of constructed emotion: An active inference account of interoception and categoriza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2(1), 1-23. <https://doi.org/10.1093/scan/nsw154>
- Given, J., & Wilison, B. D. (2022). More than a feeling: Construction emotion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100, 433-441.

Abstract

Experience of Emotional Awareness of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Semi-Structured Group Counseling Using ImageTale App

Choi, Suh Yoon · Kang, Min Su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in-depth the emotional recognition experiences of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emi-structured group counseling using the ImageTale app. To this end, the image of the ImageTale app was constructed over a total of 10 sessions for 5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emotional expression and in-depth interview data expressed by the participants in the record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participants began to recognize emotions through emotion-aware activities before constructing images, and they were able to feel emotional change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images and express them in emotional words. And after constructing the image, they experienced self-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others in the process of appreciating their own image and listening to feedback from other participants, and were able to express empathy. Above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ipants clearly recognized their emotions in the image composition, looked back on themselves, and felt hopes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ImageTale app can be a useful counseling tool to promote emotional recognition of people with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t was suggested that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help express emotions and regulate emotions of people with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ImageTale, App-based Counseling, Semi-Structured Group Counseling,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otional Awareness

【논문 투고: 2023. 10. 30. / 수정본 접수: 2023. 11. 24. / 게재 승인: 2023. 11. 29.】